

佛法은 만인 평등한 진리의 가르침

‘현대불교 입문’ (마츠다니 후미오 저, 정병조 前금강대 총장 편역)

20. 대승불교로의 길 ①

지혜의 길이라는 것
부처님 가르침은 지혜의 길이었다. 지혜의 길이란 가르침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성격이었다. 그것이 그 시대에 있어서 이룩한 역사적인 역할은 거의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한 것이다.

또 그 역할은 오늘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그 가르침이 앞으로 오랫동안 큰 존재 이유를 가질 것이라는 이유도 또한 여기에 있다.

우리는 말하자면 인생의 나그네이다. 이 인생의 나그네인 우리들이 만일 몸이 묶여 광야의 한복판에 버려졌다면 우리는 어찌하면 좋을까. 사람에게 따라서는 다만 소리 내어 울부짖는 자도 있을 것이다. 혹은 미친 듯이 다만 뛰어다니는 자도 있을 것이다. 혹은 또 신(神)에게 기도하면서 구원 받기를 원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합리적으로 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용하게 몸을 묶고 있는 것을 벗겨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자기가 지금 놓인 상황을 자세히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또 관찰하여 가야 할 곳을 결정한다. 그리고 갈 곳이 결정되면 주저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하여 그 길을 가야 한다. 부다가 이 인생의 광야 속에 놓인 우리들에게 가르친 바도 또한 이러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망동(妄動)의 길도 아니며 기적(奇蹟)의 길도 아니며 신에 의지하는 길도 아니며, 기도하며 구원을 받겠다는 길도 아니며 다만 지혜를 연마하여 지혜에 의해서 가겠다는 길이었다.

이 길은 그 시대에 있어 부다에 의해서 타개되었으며 확립되었다. 그러나 이 길을 선택하여 이 길을 따라감으로써 능히 그 목적을 성취한다는 것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다. 그 가르침의 끝자를 이해하는 일도 결코 간단하지는 않다. 연기(緣起)의 법칙성을 파악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무상(無常)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일도 쉬운 것이 아니다.

또 무아(無我)의 인간관을 확립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 이러한 것을 완전히 이해하며 확립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거슬러 올라가서 그 시대에 다다르면 그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으리라고 생각된다.

무지(無智)와 몽매(蒙昧)는 여전히 넓게 인류 위에 두텁게 덮여있었을 것이다. 그 시대에 있어서 능히 이 가르침을 이해하며 실천할 수 있었던 자는 제한된 소수의 사람들일 것이니 틀림없다. 고역(苦役)에 몸을 시달리며 이마에 땀 흘리면서 겨우 생명을

이어 나갈 수 있었던 사람들은 결국 이 가르침에는 인연이 먼 사람이었으리라고 짐작되고도 남는다. 이렇게 하여 근본불교의 교단은 결국 신분이 높은 지성이 뛰어난 ‘양가의 자제’ 들의 것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세 가지 발의 비유

어느 때 부다는 나야란다(나랏타)부근의 바야바야리강(巴夜巴夜里江)에 머물고 있었다. 그때 한 마을의 장(長)이 부다를 찾아와서 이러한 질문을 한 일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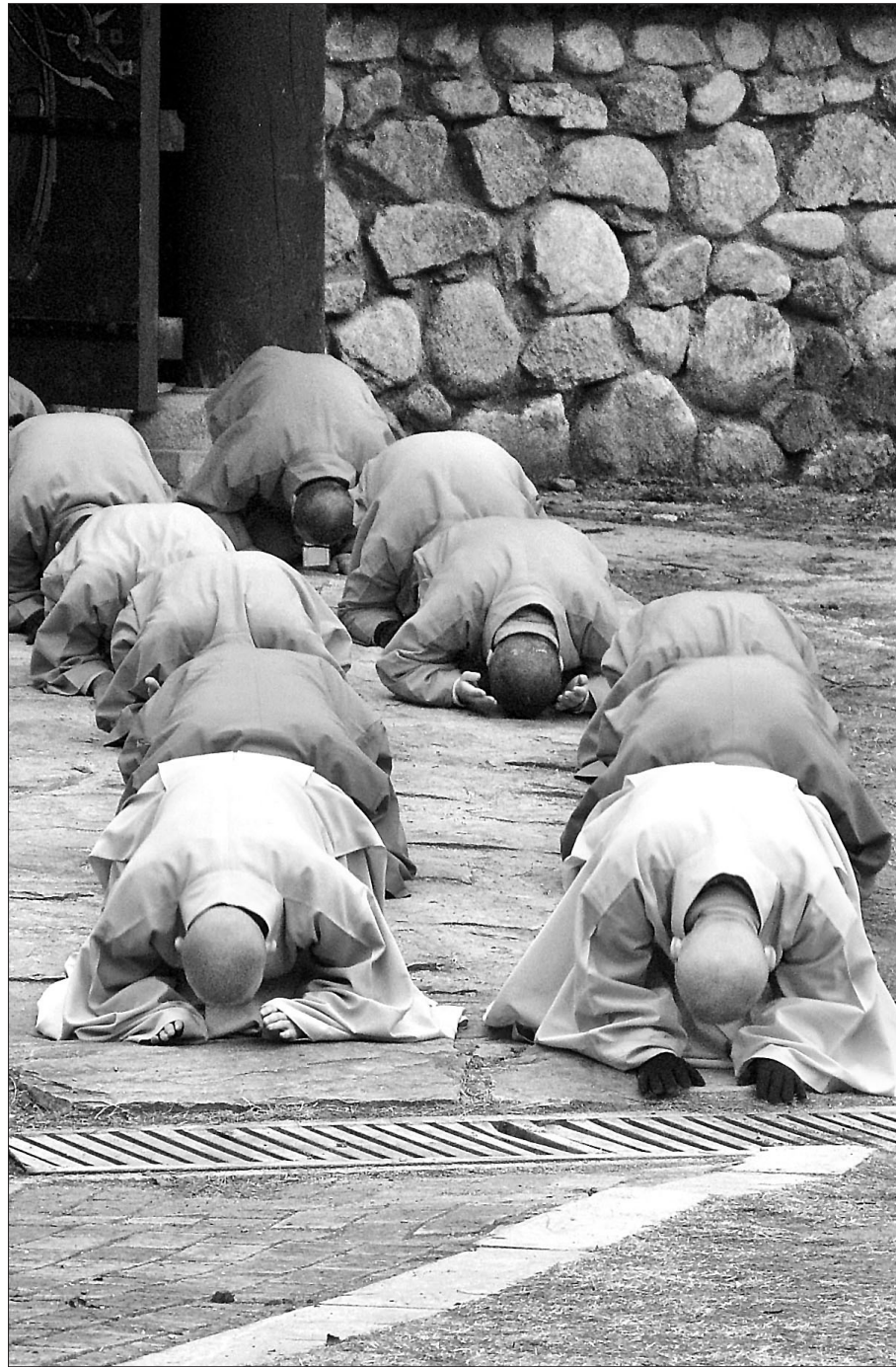
“대덕이시여, 온 세상 사람의 존경을 받는 각지(覺者)는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자비의 마음을 각인시켜 모든 사람의 이익이 되는 마음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덕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자세히 법을 설명하며 또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그렇게 자세히 법을 설명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요?”

이 질문에 대하여 부다는 전례(前例)에 따라 탁월한 비유로써 대답하였다.

“마을의 장(長)이여, 그대는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여기에 한 사람의 농부가 있어 그에게는 세 개의 발이 있다고 생각해 보라. 그 중 하나의 발은 훌륭한 옥답(玉畓)이며 또 하나의 발은 중등(中等)의 밭이며, 다시 또 하나의 발은 거친 자갈밭이며 염분(鹽分)이 많은 것이라고 하자. 이러한 밭에 지금 이 농부는 씨앗을 뿌리려고 한다. 그때 그는 먼저 어떤 밭에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받은 마을의 장은, 먼저 옥답(沃畓)에서부터 뿌리기 시작하여야 할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다음에는 중등의 밭에 뿌리며, 거친 자갈밭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특히 마지막의 자갈밭에는 씨앗을 뿌리지 않고 방치할지도 알 수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 뿌려진 씨앗은 썩어 썩어 죽어 겨우 소의 사료(飼料)가 될 정도의 것 밖에는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정도의 그가 대답하였을 때 그의 의문은 이미 해결된 것과 다름이 없었다.

여기에서 부다는 또 다시 그를 위해서 이 가르침에 대해서 ‘훌륭한 옥답(沃畓)’으로 비유된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말하였다. 그것은 비구, 바구니들이라고 말하였다. 그 사람들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대개 높은 신분의 출신이며 지성(知性)이 뛰어난 ‘양가의 자제’ 들이었다. 또 부다는 다시 ‘중등의 밭’에 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하였다. 그것은 재속(在俗)의 신남신녀(信男信女)라고 지적하여 말하였다. 그런 사람들도 또한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한 왕이나, 바라문, 장자(長者) 등 그 사회에



조계종 사미 사미니 교육 중 여행자들이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초기 교단은 일부를 제외하고 ‘양가의 자제’로 구성됐다. 하지만 대승불교로 넘어오며 교단은 누구나 출가를 할 수 있게 된다. 부처님 가르침은 만인 평등하며 소수의 특권이 이뤄져서는 안된다.

있어서 높은 지위나 재물이 많은 자가 대부분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마지막의 ‘거친 자갈밭’에 비유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부다는 그러한 사람들을 방지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원하는 것은 그들도 또한 그 중의 한 구절이라도 이해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 오랫동안 이익이 되리라.”

이렇게 교법의 씨앗을 뿌릴 것을 게을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부다가 예상한 것처럼 풍족한 수확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 경전이 말하는 바는 정말로 시사(示唆)하는 점이 많다. 이상(理想)으로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가르침이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이 가르침은 역시 가난한 사람들, 지성(知性)이 모자라는 사람들의 앞에는 폐쇄(閉鎖)된 것과 다름이 없

었다. 거기에 근본불교의 또 하나의 큰 모순이 있었던 것이다. 그 모순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상은 실현되지 않으면 안됐다. 만인평등의 가르침이 언제까지나 소수의 사람들만의 것이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부다 말후(滅後)의 불교를 등에 걸머지는 사람들이 당연히 하지 않으면 안 될 자기비판의 중대한 과제가 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해결의 길은 저절로 대승불교의 정신에 통하는 것이었다.

물론 이 가르침 속에 대승불교의 흐름을 생겨나게 한 이유는 결코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그 역사적 경위는 대단히 복잡하다. 그러나 그 가장 근원적인 이유를 찾아서 올라가려면 제일 먼저 이 가르침이 갖고 있는 이러한 역사적 제한(制限)에 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행복 스님의
一切唯心造

중도의 바른 이해를 위해

불교의 핵심 사상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중도사상(中道思想)이요, 또 하나는 연기 법칙(緣起法則)이다.

여기서는 중도 사상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쓴 <중용(中庸)> 사상과 불교의 중도(中道)를 혼용해 설명하려는 자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좌(左)로도 기울지 않고, 우(右)로도 기울지 않는 균형과 조화를 불교의 중도(中道)로 인식하는 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우선 중도의 인식을 바르게 하기 위해 초등학교생에게나 던질 법한 질문 하나 해 야겠다. ‘어디서 어디까지를 동쪽이라 하며, 어디서 어디까지를 서쪽이라고 하는가?’

남쪽과 북쪽 또한 마찬가지로의 질문이다. 머뭇거리지 마라. 정답은 정해져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현위치를 기준으로, 해 뜨는 방향을 동쪽이라 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 남쪽, 북쪽이라 규정한다.

그렇다면 사람은 누구나 동서남북의

不落(不墮)이 아니라, 양변무애(兩邊無礙)이자 무변중심(無邊中心)임을 잊지 말 일이다.

세 가지 보물(三寶)

불교에는 세 가지 보물이 있다고 한다. 이듬하여 삼보(三寶)인데 불(佛), 법(法), 승(僧)을 의미한다. 불교의 교주인 부처님과 그의 가르침(法)은 인정하겠는데 스님까지 끼여 삼보(三寶)라니, ‘글쎄요’를 연발할 수도 있는 일일 것이다. 다만 교주인 석가모니는 현존하지 않고, 그의 가르침 또한 스님들이 없으면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올 리 없을 터이다.

그래서 중국의 선불교(禪佛敎)에서는 조사(祖師)스님과 부처님을 동등시해 조불(祖佛)이란 단어까지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사족(蛇足)처럼 덧붙이는 설명은 그만 접어두고 <화엄경> 쪽으로 옮겨가겠다. <화엄경>에 보면 삼보를 세 가지로 구분해 설명하고 있다.

첫째가 주지삼보(住持三寶)인데 고희과 종이, 돌과 나무, 쇳덩이를 녹여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어놓고 예배드리며 지극정성으로 마음을 모아가는 신앙을 의미한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세계의 중심 진리는 항시 가까이 드러나 있다

중앙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서 남북의 중앙, 곧 세계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다. 세상의 주인공이 바로 나인 것이다.

나에게는 좌(左)도 우(右)도 없는 것이다. 기울고 피해야 할 변두리도 모서리도 없는 것이다.

내가 어느 곳에 머물든, 내가 어느 환경에 처해 있든 나는 세계의 중심에 있으며 세상의 주인공임을 잊지 말 일이다.

이 마음이 곧 부처요(是心是佛) 마음을 떠나 따로 부처 없다.(心外不佛) 그러므로 석가모니는 톨비니 동산에서 천상 천하(天上下) 유아독존(唯我獨尊)을 첫 외침으로 울려 댄 것이다.

팔만장경을 원효는 다섯 자로 줄여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로 표현했다. 부처는 쿠시나가르에서 마지막 그림자를 걸으며 진리의 등불(法燈明), 마음의 등불(自燈明)을 유혼으로 남기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시원한 선사 입제는 이르

는 곳마다 주인공이 되라는 뜻으로, 수처자주(隨處作主)를 큰 법문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불교의 중도(中道)는 양변불락(兩邊

둘째는 별상삼보(別相三寶)인데 나무는 서 있는 그대로 바뀌는 자연 그대로, 굳이 톨과 도구 등을 사용해 부처님 형태로 다듬어놓지 않더라도 자연 그대로가 나무부처요, 바위부처라는 논리이다.

셋째는 동체삼보(同體三寶)인데 섬겨야 할 부처님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몸 안에 갖추어져 있으며, 찾아야 할 진리는 내 맘속에 버젓이 자리하고 있다는 논리이다.

가정이 최고의 기도처이자 영험 있는 법당이다. 부모는 부처이자 처자식은 보살이라는 보편타당한 진리를 펼쳐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화엄경 현답>에서는 귀의(歸依)라는 의존적, 의타(依他)적 단어 대신, 귀경(歸敬)이라는 단어로 상호존중적 진리와, 하나임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불교에서는 매달려야 할 메시아도 없는 법이다. 그러므로 돌아가 의지할(歸依) 타력적(他力的) 신앙보다는 스스로 진리와 한 몸을 이루는(歸敬) 자력적(自力的) 신행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다. 진리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항시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관음수련법

1 관음법은 기원하고 천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진리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누구든지 수련하고 정진하면 인간의 몸 통로가 열려 성불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초점단 음파공학 진리이며, 현대의학으로도 할 수 없는 초점단 의학적 진리입니다.

2 관음수련으로 치유될 수 있는 병
중풍, 루미티스, 관절염, 허리통증, 신병, 변비, 소화불량, 빈혈 및 다이어트, 20대 몸매, 피부미용효과, 목소리 교정 및 트림 등등

3 관음수련의 종교적 성취
(1) 좌측(左) 통로가 열리면 - 지혜의 문이 열려 (문수보살)
(2) 우측(右) 통로가 열리면 - 보리심이 일어나 (관세음보살)
(3) 중앙(中) 통로가 열리면 - 행동하는 힘이 생겨 (보현보살)
(4) 사지 통로가 열리면 -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약사여래)
(5) 오관이 모두 열리면 육신통을 성취하며 이마에 제3의 눈이 열립니다.

4 관음수련의 일반적 성취
(1) 초인적인 운동선수, 골프 등등
(2) 시인 및 학문적 재능
(3) 가수 및 예술적 재능
(4) 팔경도의 사고와 의식이 저절로 생겨나 올바르게 바른 인격수양
(5)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등을 예방하며 건강에 100가지 이로움이 있음.

5 관음수련은 불자가 되기 위한 수련이 아니라 관세를 보살 - 부처님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한 수련입니다. 불법의 위대함을 직접 느껴보세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303-9번지
전화 031)572-6118 제석천 만덕사 관음 합장

명리학 화상강의

사상 처음으로... 명리학 화상강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명리학에 관심은 많지만 거리가 멀어서, 시간이 없어서 공부하지 못하시는 분들께 희소식입니다. 이제 강의실과 똑 같은 분위기로 실시간으로 명리학을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화상강의는 강의시간에 실제 들어와서 함께 공부하는 강의법입니다. 강의 중에 바로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임상과 강의경험이 풍부한 도경선생님이 직접 강의를 하십니다. (도경선생님의 강의는 유튜브에서 '도경명리'를 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강의 과목

- 명 리 학 : 초급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
- 개강일자 : 중급반, 고급반 2015년 8월 5일 수요일 - 중급반 오후 14:00~17:00 (3시간) 수강료 15만원 - 고급반 오전 10:00~13:00 (3시간) 수강료 15만원
- 입문반, 초급반 2015년 8월 6일 목요일
- 입문반 오후 14:00~17:00 (3시간) 수강료 15만원
- 초급반 오전 10:00~13:00 (3시간) 수강료 15만원
- *수강료 선납 시: 6개월 수강료 75만원, 12개월 수강료 150만원

도경명리학당으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010-8844-4654 / 010-9664-8959
도 경 명 리 학 당

국민은행 585001-04-119718 예금주 : 김연주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계약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진관사 사찰음식 제1차 공양주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모집

진관사 사찰음식연구소에서는 '공양주 전문가 양성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사찰음식의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이론 교육 및 시연을 통해 사찰 공양주 및 공양주 희망자에게 사찰음식의 우수성을 알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현해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찰음식의 활성화 및 인력 양성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1 일 시 : 2015년 7월 27일(월) ~ 29일(수) 2박 3일
- 2 장 소 : 진관사 산사음식 교육장
- 3 참 가 자 : 사찰 공양주 및 공양주 희망자 50명
- 4 주 최 / 주 관 : 진관사 / 진관사 사찰음식연구소
- 5 주 요 프 로 그 램 : ① 사찰음식의 정의와 역사 ② 공양주와 채공의 소양교육 ③ 공양주와 채공의 소임 - 이론과 실습 / 실습 발표 및 평가
- 6 교육 참가비 : 오만원정 (₩50,000원)
- 7 참 조 : 홈페이지 (www.jinkwansa.org)
- 7 문 의 : ☎ 02) 388-7999